

작성일: 2010년 3월 16일 오전10시경

작성자: 김미경 전도사

제목 : 예수님이 황홀하게 사랑하는 은하수 예술단

내 사랑하는 예술단에게 전한다.

사랑스런 나의 예술단!

나 예수가 살아야 예술이 산다.

나 예수를 빼놓은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.

나를 잊지 마라.

나 예수에게 사랑으로 나아오라.

나 예수는 사랑이다.

사람 의식 말고 오직 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을 드러라.

신입생을 무대에 세우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 하신다.

은하수 한 명 한 명이 즉 모두가 신입생이라 생각하고 대하여라.

1000년 역사가 달려있다.

부모뿐 아니라 강사와 관리자의 손길이 한 번 가고 두 번가는 게 그 정신과 사상이 달라지게 된다.

은하수 키워 지도자로 키울 것이다

모두들 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하여라.

영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육을 대하여야 한다.

사랑한다!

강사와 관리자들 모두 수고가 많구나.

나의 몸이 되어 뛰여주니 고맙구나!

사랑한다!

나를 중심한 예술이 있는 곳은 언제나 어디서나

나는 너희와 함께하니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해다오.

치어나 그 몸동작에 빠지지 말고 나에게 빠져라!

나의 사랑에 꼭 빠져 보아라.

황홀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다.

사랑해~ 각부서의 모든 예술단들~

예술단 통해서 올 생명 많으니 그 생명들에게 붙어있는

사탄을 기도로, 나의 사랑으로 물리쳐 그 생명 건지어라.

꼭 그리해야 생명의 표적 일으킨다.

사랑한다. 꽃과 같은 사랑스런 나의 예술단!

예술단을 황홀하게 사랑하는 나 예수가